

[새봄 기종 탐방]

알록달록한 동년을 아이들에게 ...

“저는 댄서이자 심리상담사이며 교육자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창업이었다. 안정적인 진로를 뿌리친 것도 본인 선택이었고 굳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고집한 것도 자신이었으니 그 길을 걸어온 과정이 힘들었노라 ‘투정’을 부릴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후회는 없다. “돌고 돌아 천직을 만났다.”는 통정시무성댄스학원 주성우(1990년생) 원장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매일매일이 말 그대로 행복 그 자체라며 운을 뗐다.

2015년에 ‘무성댄스학원’이라는 간판을 걸었으니 올해로 꼭 10년이 된다. 그 사이 무작정 세 딸아 시작했던 100평방미터짜리 단칸방 연습실에서 다용도 연습실을 두루 갖춘, 500평방미터 되는 지금의 시내 중심 학원으로 이사했고 단 1명이던 학원생이 지금은 350여명으로 늘었다. 규모도 키웠고 립지도 굳혔으니 드디어 고진감래, 이젠 행복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시작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제일 크게 반대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안정적인 보장을 제쳐두고 ‘고생길’에 뛰어들겠다는 자식의 ‘충동’을 전적으로 반길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마음도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었다. 학창시절 줄곧 모범생이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향에 돌아왔고 사업단위 편제 시험까지 치른 상향, 보편적인 인식 속 ‘탄탄대로’를 코앞에 두고 그걸 뿌리치겠다고 했으니 말리지 않을 부모도 많지 않았을 것이니 말이다.



▲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서로에게 응원이 되어주는 남편 류위정씨와 주성우씨

“정작 주위에서는 일제히 반대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안정보단 도전이 크겠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긴가민가했던 우려를 결과로 보여줬으니 지금은 되려 부모님이 그 누구보다 더 주성우씨의 사업에 모든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단다.

이젠 인생 천직이 되어버린 댄서의 삶, 춤을 전문적으로 전공했다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4살 때 엄마 손에 이끌려 갔던 민족춤학원에서 무용을 처음 접했고 초중 때에는 또 댄스문화에 눈을 뜨면서 춤에 대한 흥미를 꾸준히 이어갔을 뿐, 대학도 춤과 관련이 없는 대외한어를 전공했다.

“어려서부터 춤을 추는 분위기에 많이 노출되었던 덕본인지 몰라도 안무를 짜고 무대에 서는 일이 즐거웠어요. 대학교에서 제가 주도하여 댄스동아리를 결성했고 전교 학생동아리연합 주석을 맡아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많이 조직했었죠.”

이렇듯 춤을 추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열정이 항상 남아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201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에 가서 실습도 해보고 사업단위 공개채용 시험에도 참가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선 다른 도전의식이 꿈틀거렸다.



▲ “돌고 돌아 천직을 만났다.”는 통정시무성댄스학원 주성우(1990년생) 원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마냥 즐겁다.

생각을 실천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 역시 춤에 관심이 많았던 남자친구와의 합심이었다.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류위정씨와 주성우씨는 모두가 안된다고 할 때 백기를 드는 대신 차근차근 밀어붙였다.

“첫걸음은 둘이 땀지만 지금은 8명의 강사진이 톨풀 뭉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수업을 편성할 수 있을가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성했다. 이와 더불어 “춤만 배워주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 쾌활하고 건강한 동년을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주성우 원장은 그래서 실력으로 실력이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재 채용 원칙을 피력하기도 했다.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한 강사진은 한가죽처럼 끈끈하다. 이들중 연변에서 대학을 나온 장춘 출신 두 강사는 통정을 두번째 고향으로 여기고 아예 ‘동지’를 틀었다. 어릴 적 이 학원에서 춤을 배웠던 학원생이 지금은 어엿한 학원 강사로 활약하기도 한다.

또한 이 학원은 전국대학생 취업설명회이기도 하다. 더욱 많은 인재들이 통정에 남아 고향 진흥에 노력할 수 있게끔 이끄는 것도 학원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토록 인성을 특히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교육은 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을 보면 최연소 학원생이 만 4세이고 소학생과 초중생이 주를 이루요. 어린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 2019년 HHI 세계댄스선수권대회 길림지역 연변분지역 경기에서 이 학원의 7명 학원생으로 무어진 팀이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며 이름을 날렸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원인 또한 주성우 원장이 대학교 때 복수전공으로 심리학을 수료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가가정교육지도사(고급), 국가심리자문사(고급), 학생종합자질계획사 등 교육에 관련된 자격증들도 두루 땀다. 그러다 보니 주성우 원장은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댄서이자 교육자이며 심리상담사로 통한다.

“저희 학원에 9, 10년 다닌 아이들이 30명은 되는데 그 아이들과는 이제 사제지간이라기보다는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되었

어요. 특히 부모님들도 종종 오셔서 저한테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도 구하구요.”

때론 엄격한 선생님처럼, 때론 친구처럼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작은 변화를 포착했을 때,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성취감을 느낀다며 주성우씨는 웃었다. 부지런히 배우고 자격증을 따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댄스학원은 춤만 추는 곳,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춤까지?” 이러한 편견을 깨고 건강한 심리, 유쾌한 동년의 기억을 쌓아가는 또 다른 ‘쉼터’라는 이미지를 조성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고 싶단다.



▲ 강사의 보조에 맞춰 한동작 한동작 기초를 다지고 있는 댄서 유망주

연길시 여러 중소학교 업간휴식시간 15분으로 연장



새 학기에 들어선 후 연길시의 여러 중소학교들에서는 업간휴식시간을 원래의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하였다.

여러 학교들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최적화해 조정했는바 업간휴식시간을 연장하고 업간휴식시간 활동을 승격함과 더불어 업간휴식시간 안전을 보장하는 등 탐색을 통해 늘어난 업간휴식시간을 더욱 풍부하고도 다채로우며 취미성이 넘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겁게 성장하는 ‘비타민’으

로 거듭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학생들이 자각적으로 교실을 벗어나 실외에서 즐거운 교정생활을 향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업간휴식시간의 연장은 학생들에게 더욱 느슨하고 자유로우며 활력이 넘치는 성장환경을 마련해준과 동시에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사생들의 획득감과 행복감도 확실하게 제고시키고 있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청화대학, ‘AI+’ 첨단혁신인재 양성 위해 본과생 모집 확대

지난 2일 청화대학에 따르면 이 학교는 본과생 학생 규모를 질서 있고도 적당하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바 2025년에 150명의 본과생 학생모집명액을 추가한다. 이와 동시에 본과통식서원(本科通识书院)을 신설하여 인공지능과 다학과 교차의 복합형 인재를 힘써 양성하고 혁신인재 자주적 양성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의 전략적 수요와 사회발전의 수요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 학교의 신규 본과생은 새로 설립되는 서원에서 공부하게 된다.

인공지능이 사회와 빠르게 융합되면서 고등교육에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료해한 바에 의하면 현재 청화대학은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재 양성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 강력한 인재 지지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번 본과생 모집 확대와 새로운 서원 설립이 그 중요한 조치중 하나이다.

새로 설립되는 본과통식서원은 청화대학의 우수한 학과 자원을 모아 인공지능이 교육 및 교수, 과학연구 혁신 가운데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인공지능과 다학과의 교차융합에 립각하여 인공지능이 교육 및

교수에 역량을 부여하는 모식을 힘써 탐색함으로써 두터운 인공지능 소양을 갖추고 인공지능 기술을 장악함과 동시에 뛰어난 혁신 능력을 구비한 복합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화대학은 인재양성체계 최적화, 교원대요 건설, 교수자원 배치 등 면에서 동시적으로 노력하여 이를 위한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청화대학 교무처 관련 책임자는 현재 학교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인공지능이 교육에 부여하는 에너지 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첫진으로 117개 시범수업, 147개 교수반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실천을 전개했으며 스마트 조교, 수업준비 보조, 스마트 채점 등 다양한 기능 장면을 개발한 동시에 학생들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도우미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환경을 구축해주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학교는 현재 인공지능 부전공/자격증 항목을 건설중이며 청화대학 특색을 가진 38개 인공지능류 통식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더욱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신화사

‘연변 최대 규모 중등직업학제 학교’ 연변 IT 기술학교 증축 대상 준공

2월 27일,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 상무위원회 및 연길시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대상인 연변 IT 기술학교 증축 준공식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 열렸다.

연변 IT 기술학교는 2009년 10월 19일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에서 비준, 설립한 전일제 중등직업학교이다. 2024년에 학교는 선후하여 연변항공공송무기술학교, 연변현대직업기술학교와 합병했으며 현재 연변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등직업학제 학교이다. 이 학교는 전국 보통대학임시 종합고중반, 전문진학반, ‘3+2’ 중등직업교육 련결반, 컴퓨터 광고제작, 컴퓨터 네트워크 응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설계,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컴퓨터 응용 및 보수, 음악, 민족 음악 및 무용, 자동차수리, 다도, 전자상

거래, 미용미발 및 스타일링(화장), 유아교육, 회계, 항공서비스 등 14개 전공을 설치했다. 동시에 여러 등급의 단기 취업강화반을 설치했다.

학교는 건교 이래 시종 과학적인 학교 운영 리념을 견지하면서 우월한 교수환경, 일류의 교수설비, 일류의 교수진으로 소질이 높은 중등직업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말까지 이 학교는 루계로 근 2만명의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했다.

연변 IT 기술학교 증축 대상은 주인대 상무위원회, 연길시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추진한 중점 대상으로 부지면적이 3만 5531.4평방미터, 건축면적이 1만 8151.61평방미터이고 2010.2만원을 투입해 전 단계 개조를 다그치고 있다.

/ 연변조선